



“  
**역동적인**  
 학습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주춧돌** 되겠다  
 ”

한국기후변화학회 추계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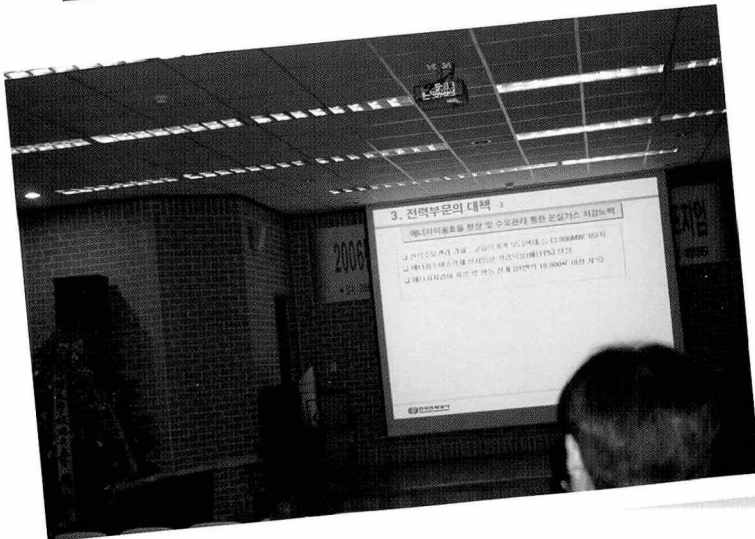
최기련 신임회장 선출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서주석)가 지난 11월 24일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2006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최기련 아주대 대학원 에너지학과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탄소저감대책기술, 산업체 기후변화대책, CDM 및 배출권 등 3개 세션에서 총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L** FGD발전소의 효과적인 CDM사업을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발전부문의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전략을 평가해 보려면? 소형발전시설은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감 및 CO<sub>2</sub>저감효과를 가져올까? 깨끗한 기후를 위한 전기로의 바그스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지난 11월 24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2006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시간이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이러한 내용 외에도 탄소저감대책 기술, 산업체의 기후변화대책, CDM 및 배출권 등의 분야에서 학술논문 30여 편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7일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 법정학회로 등록된 기후변화학회는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학회는 법정학회로 등록되기 이전인 1994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후변화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에너지산업의 기후변화 대책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북대 김종달 교수가 '주요국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책동향 및 한국의 진로' 라는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한국

전력 박상덕 실장이 "전력부문의 기후변화대책", 산자부 김현철 기후변화대책 팀장이 "기후변화협약의 정부대응 방안 및 향후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문제해결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체제만으로도 지속적인 협상과 규제로 이어져 수많은 세계 정책들의 형성, 추진에 관여하고 결국 선후진국을 판가름할 것"이라며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및 산업구조와 첨단기술보유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한국간 신규자동차 CO<sub>2</sub> 배출량 감축협정 체결, 세계반도체협의 PFC배출량을 2019년까지 10% 감축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무부담압력이 가중될 것을 시사하는 바라고 김 교수는 역설했다.

산자부 김현철 팀장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무부담 가변성으로 기업들의 조기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대응을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시책을 마련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전략수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후변화학회는 2007년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최기련 아주대 대학원 에너지학과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



**우선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관련 연구에 30년을 몸담아왔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관련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기후변화대응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학회발전을 위해 힘쓰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초기 정태적 연구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동태적으로 가야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혁신적 학습방법이 있으면 과감히 도입하고 외부전문가의 논리를 최대한 수용, 기존 논리에 집착하지 않는 다이나믹한 연습연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INTERVIEW ...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최기련 신임회장